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 전공

고영서

2019년 8월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양진건

고영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심사위원장 김대명 
위 원 김진건 
위 원 이인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8월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 영 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 전공

지도교수 양 진 건

최근 우리사회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음주문제는 개인에게는 인격적 · 정신적 · 사회적 손상을 끼치게 할 뿐 아니라 가정과 소속 집단에 대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목할 점은 가족 내의 문제음주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청소년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한 ACOAs는 어느 한 측면에서는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경험한 생활상의 스트레스들이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특히 인생 발달 단계에서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자아 정체감과 인생관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이고 향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의 기반을 닦고, 인간관계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대학생활은 성숙한 사회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기 때문에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과업을 잘 수행하고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처럼 중요한 대학생활에 적절히 적응을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음주문제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음주로 인한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적응에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좀 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면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는 대학생활 적응과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음주자의 자녀를 이해하고 학교적응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학문적 성취증진 및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주제어 : 부모, 문제음주, 대학생, 적응, 대학생활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문제	2
3. 용어의 정의	3
1) 부모의 문제음주	3
2) 대학생활 적응	4
II. 이론적 배경	5
1. 부모의 음주	5
2. 대학생활 적응	10
3. 대학생활 적응 구성 요인	11
III. 연구방법	16
1. 연구설계	16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6
3. 문제음주 자녀 선별	16
4. 측정도구	17
1) 부모의 문제음주	18
2) 대학생활 적응	19
3) 분석 방법	20
IV. 연구 결과	21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1
2.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요인에 따른 기초통계량	22
1) 대인관계에 따른 기초통계량	22

2) 학업활동에 따른 기초통계량	23
3) 진로준비에 따른 기초통계량	24
4) 개인심리에 따른 기초통계량	25
5) 사회체험에 따른 기초통계량	26
3. 문제음주집단과 비음주집단 간의 대학생활 적응 차이	27
V. 결론 및 제언	32
1. 결론	32
2. 제언	33
참고문헌	35
【English Abstract】	47

표 목 차

<표 II-1> 부모음주 선행 연구	8
<표 II-2> 대학생활 적응요인 선행연구	12
<표 III-1> 설문지 회수 현황	16
<표 III-2> 문제음주 자녀 선별	17
<표 III-3> 측정도구 현황	18
<표 III-4> 부모음주자 자녀선별 척도(CAST - K)	19
<표 III-5> 대학생활 적응 척도 구성	19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1
<표 IV-2> 대인관계에 따른 기초통계량	23
<표 IV-3> 학업활동에 따른 기초통계량	24
<표 IV-4> 진로준비에 따른 기초통계량	25
<표 IV-5> 개인심리에 따른 기초통계량	26
<표 IV-6> 사회체험에 따른 기초통계량	27
<표 IV-7> 문제음주집단과 비음주집단의 대학생활적응 차이	29

그림 목 차

[그림 II-1] 월간 폭음률 현황	6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 드라마나 각종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혼술', '우정주' 등 음주문화를 미화하고 조장할 수 있는 음주 장면이 지속적으로 방영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뉴시스, 2017.11.15). 방송매체에서 보여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술 권하는 문화'는 술에 대한 매우 관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보여 왔으며 과도한 음주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술 권하는 사회'의 음주문화를 옛 어른들은 소가 물을 마시듯 술을 마구 퍼 마신다하여 우음(牛飲)이라 하였고 이러한 형태의 문화를 '우음문화(牛飲文化)'라 일컬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음주를 아무 각성 없이 습관처럼 마셔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5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코가 비뚤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는 폭음률이 19세 이상 성인의 36.8%에 달할 정도로 자주, 많이 마신다고 하였으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9조 4,000억 원에 달할 정도다(한국일보, 2018. 2. 2)라고 했다.

이러한 음주 문제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심각한 문제 음주로 인해 가족적 응력 및 결속력을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고 그들의 자존감도 더 낮아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나가는 극복력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이현화, 2003).

또한 김종범(2008)은 문제 음주의 경우, 개인에게는 인격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을 끼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소속 집단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그 심각성이 있으며 가족 내의 문제 음주는 통상 '가족질병'으로 표현되어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청소년 자녀들이라 하였다.

특히 인생 발달 단계에서 자아 정체감과 인생관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향후 자신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의 기반을 닦고, 대인관계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박다연, 2015). 아울러 대학생들은 성숙한 사회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기 때문에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과업을 잘 수행하고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학생이 된 알콜중독자 자녀들은 어느 한 측면에서는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동안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경험한 생활상의 스트레스들이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Pilat, 1983; Jones, 1990)고 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공통적으로 대학생들은 학업성취, 진로 및 취업문제, 가족관계, 가치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성경, 2003; 이은희, 2004; 숙명여대학생생활상담소, 2008; 송정애, 장정순, 2010).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이성 부모와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생활 적응의 한 영역인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에서 어려움을 보였으며 (Hoffman, 1984) 특히 부모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지닌 대학생들은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대학생활을 잘하고, 심리적 어려움도 덜하며, 사회적 지지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nny, & Rice, 1995; 장희숙, 2002).

부모와의 관계가 대학생이 된 후기 청소년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 (박다연, 2015)로 볼 때 음주문제 가정에서 성장한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음주 문제를 조사하고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교라는 맥락 속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음주자의 자녀를 이해하고 대학생활적응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학문적 성취증진 및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음주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을 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문제음주가정과 일반가정과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부모의 음주문제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3. 용어의 정의

1) 부모의 문제음주

음주문제에 대한 정의는 미정신의학회(1994)가 개발한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of Mental Disorder, Fourth Edition)에서 음주로 인한 문제를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 남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권진숙 외, 2009), 세계보건기구(1992)에서는 인간에게 발병할 수 있는 질병들을 그 원인과 해부학적 분류로 정리해 놓은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에 알콜 의존을 정신 및 행동장애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음주문제(alcohol problem)는 중독의 단계별로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과, 알코올 남용(alcohol abuse), 문제음주(problem drinking), 폭음(binge drinking) 및 위험음주(risky drinking)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유채영, 2003).

알코올 의존은 알코올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고 신체적증상으로 인지적, 행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알콜남용은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이것으로 인하여 직업, 가정, 학업에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폭력적, 법적인 문제를 동반하며, 대인관계에서 다툼이나 갈등을 발생하기도 한다(권진숙 외, 2009). 또한 문제음주는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기능 및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 문제를 야기하는 음주 행동으로 정의(이은영, 2010; Dayley & Marlatt, 1997)하고 있다.

Barmes et al(1995)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주요 관련 변인으로 부모의 음주행위, 음주태도, 부모 자녀관계를 언급하면서 그 중 부모의 음주행위와 음주태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김민경, 2012).

또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서 훈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역할 모델로써 자녀들의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조희, 1999). 부모의 음주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청소년들이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안경선, 1996).

YMCA(2002)의 보고서에 의하면 상담실을 방문하는 80~90%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음주문제를 보고하고 있어 청소년 문제의 중심에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있다는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이진이, 2009).

이처럼 부모의 음주문제는 자녀들에게 적응에 있어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문제음주자의 자녀를 선별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Jones(1983)가 개발한 CAST(Children of Alcoholic Screening Test)를 김경빈·김미례·장일환(1995)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를 이용하여 연구·분석에 활용하였다.

2)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적응의 의미는 대학생이 대인관계, 학업,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Baker와 Siryk, 1989).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만을 적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훨씬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생활적응이 정의되고 있다(문화진, 2018).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반응과 대처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정영숙, 김수빈, 2014).

Datu(2012)는 대학생활 적응을 한 개인의 타고난 자원들을 그에 해당하는 학업적, 사회적 및 심리적 도전에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박진영(2009)은 대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인 대학에서 상호작용과 대학 내·외의 생활하는 여러 장면에서의 요구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한 결과로써 대학생활 적응 수준으로 정의했다(김정현, 2016). Gerdes와 Mallinckrodt(1994)는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대학교육의 학문적 적응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 정서적적응은 대학생들이 중도탈락 하지 않고 대학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이미라,전현숙, 2015, 재인용). 정은이, 박용한(2009)은 대학생들이 대학내의 구성원이나 환경과 서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스스로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과정과 결과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학생활적응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정은이, 박용한(2009)이 자체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척도를 활용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분석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음주

많은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Sher 등(1991)은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공격성, 비행, 주의력 결핍 등 행동상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다고 하였으며 Knorring(1991)는 알코올중독 부모를 가진 소아 청소년들에서 행동장애, 과잉행동, 물질남용, 우울과 불안 정신과적 장애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김경빈 등(1995)과 sher 등(1991)은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이 알코올과 약물 문제가 더 많고, 정신과적 어려움이 더 많으며, 학업성취가 낮고 언어적 능력이 더 떨어진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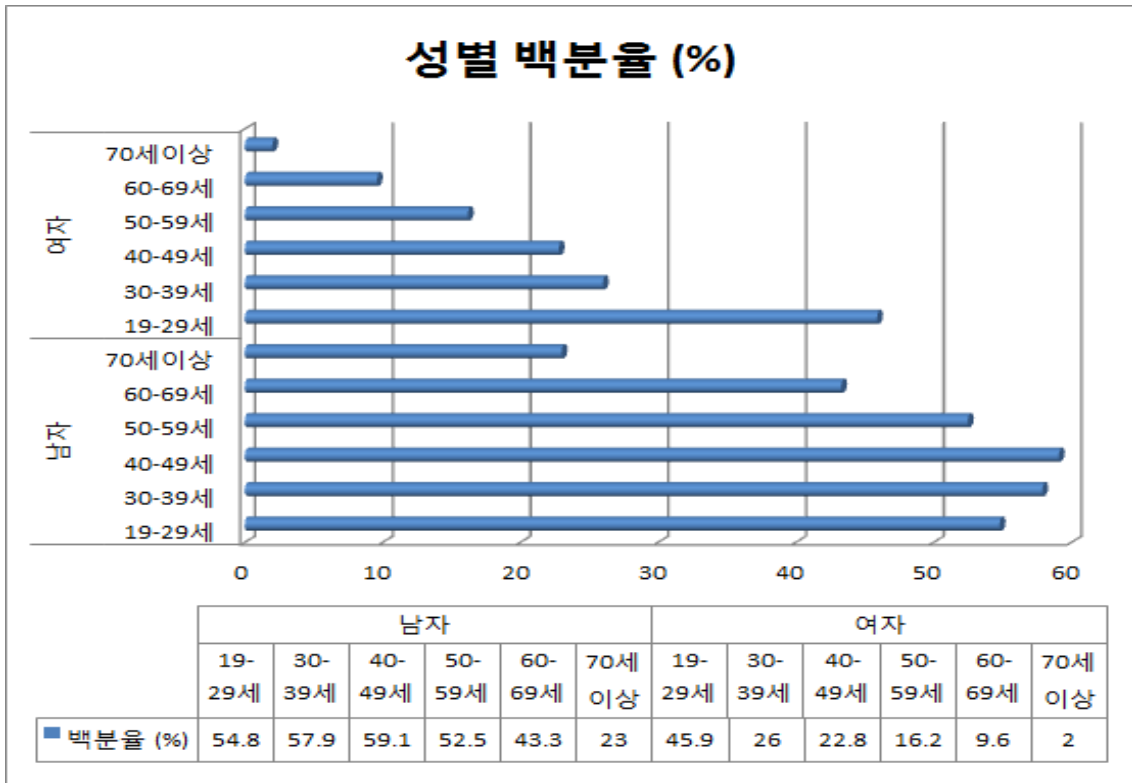
또한 알콜중독자 자녀들은 공포감, 두려움, 증오심, 죄책감, 외로움 등을 자주 느껴 그들의 생활에서 안정감이나 평안감을 갖지 못하고 알콜중독자인 부모는 친구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당하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 자녀들은 또래 집단에서 무시당하고 친구를 사귀거나 교체하는데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사회성이 결여되어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주가 폭력의 심각성 증가와 가정폭력의 만성화를 가져온다. 또한 가해자의 음주가 가정폭력 행동의 재발을 관찰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장수미, 2003).

이처럼 음주문제는 알콜중독자들을 포함한 음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음주자의 자녀들까지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이은영,(2010; Dayley & Marlatt, 1997)은 문제음주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법적, 영적, 기능과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의 문제를 유발하게 하는 음주 행동으로 보았으며, 김종범(2008)은 문제음주의 경우 개인에게는 인격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을 끼치게 할 뿐 만 아니라 가정과 소속 집단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심각성이 있으며 가족 내의 문제 음주는 통상 '가족질병'으로 표현되며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청소년 자녀들이라 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월간폭음률이 총 응답자 중 40세 이상 49세 이하가 전체의 59.1%로 가장 높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가 전체의 57.9%, 19세 이상 29세 이하가 54.8%, 60세 이상 69세 이하 남자가 전체의 43.4%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30세부터 39세 이하가 26%, 40세부터 49세 이

하 22.8%, 40세부터 49세 이하 16.2% 순으로 음주율을 보인다. 이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고 한다.

[그림 II-1] 월간 폭음을 현황



출처 :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러한 음주 문제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심각한 문제 음주로 인해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고 그들의 자존감도 더 낮아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나가는 극복력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이현화, 2003). 특히, 문제음주자의 자녀들에게서 분리의 어려움, 동일시의 어려움, 역할에 대한 혼동, 후일 동료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이 지속된다고 하였다(김종범, 2008).

정수미(2001)는 문제 음주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동일 시 모델의 상실로 인하여 성역할 정체성이 결여 되고, 특히 딸의 경우에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에 동일 시 하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를 가지게 되거나 자신이 알코올중독자가 되고 또는 중독자와 결혼하는 등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영향을 평생 동안 받는다고 설명하였다(이현화, 2003); Black(1981)

또한 문제성 음주 부모의 자녀 가운데 58퍼센트가 문제성 음주자가 되고 30퍼센트는 문제성 음주자와 결혼하며, 12퍼센트는 적응상의 문제를 갖게 된다고 보고하였다(장수미, 2001).

최윤정(2004)은 '일반가정보다 문제음주자 가정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력도 부족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의 질도 낮았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며 아버지의 문제 음주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과 아버지 부모 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했다. 민은정(2000) 또한 부모가 문제성 음주자인 자녀들이 자기 개념이 부정적이고 죄책감, 무가치감, 열등감, 자기 비난 등이 많았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의 감정은 지나치게 통제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매우 민감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Bowlby, 1988) 일생에 걸쳐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박범혁, 정영숙, 2007; 조화진, 서영석, 2010; Rice, Lopez, & Vergara, 2005), 개인의 심리적인 적응, 성격, 발달 등과도 관련이 높다(김광은, 2008; Ainsworth, 1989)고 했다. 부모는 이처럼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이후 사회적 관계까지 영향력이 있다(허수경, 2019).

선행연구에서 알코올과 관련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되어 오고 있다. 부모 음주 관련 선행연구는 <표 II-1>와 같다.

<표 II-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음주와 관련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손영균(1994)은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민은정(2000)은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갈등과 가족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고, 최윤정(2004)은 부모 역할과 부모와의 애착, 알코올성향과 문제 음주에 관한 연구(윤명숙, 2006)에서 부모 음주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 외 심리적 특성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김진희, 2002; 정향수, 2005; 전재복, 2005; 김규수, 2006),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백범, 2018), 자존감과 우울(김민경, 2012; 유정순, 2015), 음주 문제 및 공동의존(김혜선, 2013), 음주 및 문제성 음주(장지현, 2002; 김민경, 2012), 정신병리 및 정신건강(권오인, 2003; 한재현, 2015; 봉은주 외, 2016), 음주 행동(차소영, 2004), 적응 유연성 연구(김정득, 2003),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봉은주 외, 2016; 신진희, 2017), 자녀의 심리적 특성과 부적응(손영균 외, 1994; 김규수, 2006), 문제 음주와 식이 문제(김한나 외, 2019), 부모화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안재순 외, 2012), 우울과 학교적응(이은영, 2011), 부모화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안재순 외, 2012), 폭식 행동(조혜연, 2007), 또 우울감, 행복감, 가족 기능, 아동 문제행동(최은주 외, 2018), 적응(민은정, 2000; 최윤정, 2004;

최윤신, 2009)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표 II-1〉 부모음주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 연구 내용	대상
손영균 외(1994)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	청소년
민은정(2000)	자녀의 적응-부모갈등과 가족 기능 매개	청소년
김진희(2002)	초등학생 자녀의 심리적 특성	초등학생
심정원(2002)	사회적 지지, 부적응 행동	청소년
장지현(2002)	음주 기대, 문제성 음주	청소년
권오인(2003)	정신병리	청소년
권종선(2003)	극복력	고등학생
김정득(2003)	적응 유연성	문제성음주자 자녀
이현화(2003)	극복력	청소년
서혜련(2004)	부모 양육 태도, 스트레스의 관계	문제음주, 비음주자녀
차소영(2004)	음주 행동	청소년
최윤정(2004)	자녀의 적응-부모 역할, 부모 애착 매개	청소년
정향수(2005)	부적응행동	알콜중독자 자녀
김옥기(2005)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
전재복(2005)	심리적 특성	청소년
윤명숙(2006)	ACOA 성향과 문제 음주	대학생
김규수(2006)	심리적 특성, 부적 행동	중학생
김정희(2006)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
조혜현(2007)	폭식 행동-성인아이 성향	여자대학생
권기창(2008)	학교적응-심리사회적 특성	문제성음주자 자녀
김중범(2008)	학교적응-심리사회적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원재순(2009)	학교적응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	중학생
이진이(2009)	학교적응	알콜중독자 자녀
최윤신(2009)	적응-자존감의 조절 효과	청소년
원명숙 외(2009)	약물사용, 태도	청소년
이은영(2011)	우울, 학교적응	남자고등학생

김민경(2012)	음주 기대와 문제 음주-자존감과 우울	대학생
안재순 외(2012)	부모화, 자아존중감	고등학생
김혜선(2013)	음주, 문제 음주의 영향, 공동의존	대학생
박다연(2015)	ACOAs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
유정순 외(2015)	가족 기능, 우울-개인 내적 보호 요인	대학생
정미애(2015)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여자 청소년
한재현(2015)	정신병리	청소년
봉은주 외(2016)	정신건강-인터넷 중독	대학생
신진희(2017)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이백범(2018)	부모양육 태도, 문제 음주 관계 - 스트레스 대처방식 매개	대학생
최은주 외(2018)	모 우울감, 행복감, 가족 기능, 아동문제행동	양유자, 6세아동
김한나 외(2019)	문제 음주, 식이 문제-우울	여자대학생

또한 음주 문제 자녀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로는(최윤신, 2009; 이은영, 2011; 권기창, 2008; 이진이, 2009; 정미애, 2015; 김종범, 2008; 원재순, 2009)등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음주문제에 관한 연구는 (윤명숙, 2006; 김정희, 2006; 조혜현, 2007; 김민경, 2012; 김혜선, 2013; 박다연, 2015; 유정순(2015), 봉은주 외(2016), 이백범, 2018; 김한나 외(2019)) 등의 연구가 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음주 문제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음주로 인한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적응에 있어 부모의 문제 음주 영향이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좀 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면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문제음주자의 자녀를 선별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Jones(1983)가 개발한 CAST(Children of Alcoholic Screening Test)를 김경빈·김미례·장일환(1995)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선별검사(CAST-K)를 사용하여 부모 음주에 대한 자녀의 지각 경험 반응을 평가함으로써 적어도 한 명의 알코올중독자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를 선별할 것이다. 이 CAST-K는 부모의 음주와 연관된 개인의 행동, 경험, 감정 등을 사정하는 총 30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척도개발자인 Jones(1981)는 총 30점의 범주에서 6-30점을 획득한 참여자를 부모 한쪽 혹은 양쪽이 알코올 중독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더 엄격한 문제음주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CAST-k 검사에서 상위 25%를 문제 음주 자녀로 분류한 민은정(2000), 차소영(2004)와 같이 상위 25%를 문제성 음주 부모의 자녀집단으로 분류하고 절단 점을 8점으로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2. 대학생활 적응

Arkoff의(1968)는 적응을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으며, 개인이 환경과 사회 안에서 갈등이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상태(박선영, 2003)라고 했다.

부적응은 환경과 개인 관계에서 개인의 욕구, 사상, 감정 등이 사회의 규범에 용납되지 않거나 사회적응과 인간관계에서의 부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최순남, 2006), 하지만 부적응은 적응의 반대의 개념이거나 이분법으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닌 중첩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Garmezy, 1994).

또한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은 하나의 연속선 상의 과정으로 개인의 발달시기 상의 맥락에서 개별적, 상황적으로 동시에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한다(김성경, 2003).

그러므로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은 대학 안에서의 물리적, 인적, 제도적 환경과 학생 개인이 지닌 다양한 특성 간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은 단순한 기능 발달이나 기술의 습득에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동화로 적응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한다(권혜진, 2007)고 보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2013)의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다차원적인 영역에서의 적응이 요구되는 대학생활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문제, 진로문제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생활에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백은주의 2017)고 보고 했다.

이러한 대학생활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체감이 미형성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확고한 사회적 역할이 제공되지 않아 불안정한 시기이므로(Erikson, 1963) 이때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지 못하면 희망, 만족, 즐거움이나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사고 실패, 후회, 불안 적대감, 불만족, 등의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로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가족, 동료,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인적자원 계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박유화, 2001).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학생활 시기가 자아실현이나 진로 결정, 취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학생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대학이라는 환경 안에서 다양한 변화와 더불어 다차원적인 현상의 요구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 대학생활 적응 구성 요인

선행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 문제나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Baker & Siryk(1984)가 대학생활적응 척도(SACQ)를 개발함으로써 활발히 이루어졌다(정은이, 박용한, 초기 연구들은 학업적 성취 수준을 중심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정의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개인적·사회적 요인 등이 함께 연구 되고 있다(김희숙, 2006: 176-201).

대학생활의 적응에 관한 대표적인 측정도구는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a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로, 대학생활의 적응을 결정해 주는 성격적, 환경적 요인들의 역할을 알아보는 동시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확인해 내는 진단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Baker와 Siryk, 1984). 이 척도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 등의 네 가지 하위변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안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학업적 적응, 둘째, 대학에서의 사회적 활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학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사회적 적응, 셋째, 일반적인 심리적 문제와 신체적 건강 문제 등을 측정하는 개인-정서적 적응, 넷째, 대학에 대한 애착 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업의 목표에 대한 몰입 정도를 나타내는 대학 애착이다(정은이, 박용한, 2009).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 척도들이 연구되었는데 이윤정(2000)은 Baker & Siryk(1984)의 네 가지 하위변인 중 개인-정서적 적응에서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으로, 대학환경에 대한 적응에서 대학에 대한 애착으로 바꾸어 총 다섯 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하은경 외, 2018). 김광현, 강성배(2016)등은 연구에서, 대학생활 전반적 적응, 대학적응, 학과적응, 주관적 복지 등 4가지 하위 척도를, 한덕웅 외(1991)는 척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강혜원(1998)은 한덕웅(1991)의 척도에 기반 하여 교수 및 복지 만족도, 심리적 문제

및 전망과 학업태도, 학업기술 과 환경의 개인차, 교육의 운영 만족도, 대학의 제도, 학사운영, 시설, 교우관계 등 9개 변인으로 대학생활 적응 척도 구분하였다.

또한 SACQ척도(Baker & Siryk)를 변안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학업적적응, 사회적적응, 개인, 정서적적응, 대학환경적응(일반적 적응)등 6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최영희,1999; 정민 외, 2002; 양혜선 외, 2004; 유부미 외, 2004; 이보라 외, 2005; 조화진, 2005; 김희숙, 2006; 박희석, 2010.)하였다.

이후 이경아 외(2008)는 자체개발한 척도로 전공만족, 대인관계, 학업적응, 정서안정, 사회적 유능성, 학습전략 등 대학생활 적응 척도를 6개의 하위 요인으로 보았으며, 정은이 외(2009)는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체험 등 5개의 하위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이후에 대학생활 적응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 표Ⅱ-1>와 같다.

<표 Ⅱ-2> 대학생활 적응 요인 선행연구

연구자	대학생활적응 하위 요인	특징
신지(2000)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	SACQ척도
이광형 외(2000)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환경적응, 대학만족도	SACQ척도
김효원(2014)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환경적응, 대학환경만족도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
최낙현(2008)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 적응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
김복미(2009)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 적응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수정·보안
김윤경(2009)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환경 적응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
박진영(2009)	심리유체 적응, 교육의 질, 성인학생 관계 적응, 대학공부 적응, 일반학생 관계적응, 외부상황 적응	자체개발
장형유(2011)	대학생활 몰입	멘토링
김녀(2012)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수정·보안
김미정(2013)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 적응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수정·보안
김혜리(2013)	학업적응, 사회환경적응, 심리적응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수정·보안
이찬숙(2017)	학문적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 교수와의 상호작용,	College Student

	진로정체성, 학교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기대, 대학 만족도	Inventory(Michael L. Stratil(2수정
곽효연(2015)	부모와의 애착동, 학업적응, 환경적응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
박소연(2016)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
이명숙(2016)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환경적응	SACQ척도
김정현(2016)	심리유체 적응, 교육의 질, 성인학생 관계 적응, 대학공부 적응, 일반학생 관계적응, 외부상황 적응	박진영 개발 척도
김진희(2016)	학업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
권은경(2017)	학업적응, 정서적응, 환경적응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
김경영(2017)	신체적응, 대학생활 애착, 환경적응, 정서적응, 사회적응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 수정·보안
이애영(2017)	학업 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
전홍주 외(2017)	대학 및 전공 선택동기, 학교생활, 전공, 관계, 진로 계획	자체척도 개발
함영애(2018)	사회적적응, 정서적적응, 신체적적응 학업적(학업 성취도)적응, 대학환경(애착)적응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 수정·보안
이정희(2018)	학업적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 가정의 지원, 대학의 지원, 대학만족도, 자아존중감	Michael college Student Inventory 변안·수정
양은석(2018)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적 적응, 대학 환경적응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 수정·보안
윤경희(2018)	학문적적응, 사회적적응, 정서적적응, 신체적응, 대학에 대한애착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 수정·보안
김경호(2018)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체험	정은이, 박용한(2009) 개발 척도
오영희(2018)	대학자체에 대한 만족, 대학공부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만족, 대학의 인간관계 등에 대한 만족	자체척도 개발
하수경(2019)	학업적적응, 사회적적응, 개인·정서적적응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 수정·보안
이정민(2019)	학업적적응, 사회적적응, 정서적적응, 신체적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SACQ척도(Baker & Siryk) 변안. 수정·보안

〈표 II-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생활 적응 척도에서 하위변인을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대학환경 적응 등으로 보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았다.

반면 박진영(2009)은 성인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를 개발하여, 기존

의 대학생활 적응 척도와 달리 성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심리육체적응, 교육의질적응, 성인학생 관계적응, 대학공부적응, 일반 학생관계적응, 외부상황적응 등 6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김경호(2018), 이정미 외(2019)등은 정은이, 박용한(2009)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환경 등으로 총 5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Baker & Siryk(1984)의 SACQ(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게 조금씩 변안한 것이 다수이다(김광현 외, 2016).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대학생활 적응영역으로 학업적, 사회적, 개인-정서적 대학환경의 영역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 오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성인기로 접어드는 관문인 대학생활 시기에 학업에서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나 특히 진로나 사회에 대한 준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그러한 대학생들이 심리상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은이, 박용한(2009)이 자체개발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를 활용하여 학업활동, 대인관계,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환경 등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은이 박용한(2009)은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인관계와 학업활동을 제시하였고, 그중 학업 관련 활동이 가장 핵심 요인이며,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또한 중요하며 이러한 개인의 역량 외에 진로준비가 대학생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목표로 개인의 도전의식과 사회체험이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평가 요인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은이, 박용한(2009)의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 번째, '대인관계' 영역에서 대학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교류하는 것으로 선, 후배, 동기, 교수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두 번째, '학업활동' 영역에서 학업에 충실하고 전공 과목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성실성과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 번째, '진로준비' 영역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위해 계획적이며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학생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하고 영어 관련 공부를 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네 번째, '개인심리' 영역에서는 대학생으로서 책임감과 도전의식을 갖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아칭찬성과 용기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개인심리는 Baker와 Siryk(1984)의 척도에서 일반적인 심리적문제와 신체적 건강 문제를 측정하는 개인 정서적

적응과 다른 데 보다 긍정적이며 대학생이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심리적 도전과 관련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사회체험' 영역은 교내·외 여러 단체나 조직에 참가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봉사활동 등이 포함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수행하는 서술적인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설문지는 총 420부를 제작하여 2019년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제주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의 취지와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배부하고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그 중 400부를 회수하여 무응답이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4부를 제외하고 총 364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지 회수 현황은 <표 Ⅲ-1>와 같다.

<표 Ⅲ-1> 설문지 회수 현황

배포(수)	회수(부)	회수율(부)	유효 자료수(부)	자료 사용율(%)
420	400	95.3	364	91

3. 문제음주 자녀 선별

본 연구에서 문제음주 부모 자녀집단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부모음주 자녀선별척도(CAST-K) 30문항에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 중 '예'를 선택한 문제를 한 문항 당 1점으로 하여 30점 만점에서 6~30점까지를 문제음주자로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더 엄격한

문제 음주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민은정(2000), 차소영(2004)의 연구에서 상위 25%이상인 8점 이상을 문제성 음주부모의 자녀집단으로 분류한 것과 같이 8점 이상을 문제음주자로 선별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제음주자의 절단 점을 기준으로 하여 8점 이상을 부모 문제음주 집단, 7점 이하를 부모에게 음주 문제가 없는 비교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분석 결과 척도에서 8점 이상을 나타낸 대학생이 146명(46.1%), 7점 이하를 나타낸 대학생이 218(59.9%)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척도에서 8점 이상을 나타낸 대학생 146(41%)명을 부모에게 음주 문제가 있는 문제음주 집단으로, 7점 이하를 받은 대학생 218(59.9%)명을 부모에게 음주 문제가 없는 비교집단으로 보고 분석에 이용하였다. 문제음주자의 집단 분류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문제음주 자녀 선별

척도	음주 수준 분류	빈도(명)	비율(%)
CAS-K	비음주자 자녀(0-7점)	146	40.1
	문제성 음주자 자녀(8-30점)	218	59.9
합계		364	100.0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 집단의 일반적 사항(성별, 연령, 학년)을 묻는 질문지와 음주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 경험, 반응 평가를 묻는 알코올중독자 가정의 자녀 변별 척도(CAST-K), 대학생활 적응 5개의 영역을 측정하는 대학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도구 현황은 <표 III-3>와 같다.

〈표 III-3〉 측정도구 현황

변수명	하위영역	문항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학년, 연령	3
부모음주	음주부모 자녀 선별척도 CAST-K)	30
대학생활 적응	대인관계	4
	학업활동	4
	진로준비	4
	개인심리	4
	사회체험	3
전체		52

1) 부모의 문제음주

대학생 부모의 문제음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Jones(1983)가 개발한 CAST(Children of Alcoholic Screening Test)를 김미례 등(1995)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의 음주에 대한 아동의 지각, 경험, 반응을 평가함으로써 적어도 한 명의 알코올중독자 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고안된 30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게 되어 있고,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집단 또는 개인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CAST-K 척도에서 6점 이상을 얻은 사람은 "알코올중독자 자녀"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 자녀 대신 "문제음주자"로 명명하고 엄격한 문제음주자의 선별을 위해 8점 이상을 받은 경우 문제음주자 자녀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들은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한 문제를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한 자녀이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김미례 등(1995)에서 Cronbach's α .94로 입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3이었다. 부모음주 자녀선별 척도(CAST - K)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음주부모 자녀 선별 척도(CAST - K)

하위영역	Cronbach's α	문항수
음주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 경험 반응 평가	.963	30
합계		30

3)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정은이와 박용한(1998)이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5개의 하위 구성요인을 대인관계(4문항), 학업활동(4문항), 진로준비(4문항), 개인심리(4문항), 사회체험(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생활 적응 척도 구성은 다음 〈표 III-5〉와 같다.

이 척도는 Likert 척도 5점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0~.78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대학생활 적응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6이었다.

〈표 III-5〉 대학생활 적응척도 구성

대학생활적응척도	하위변인	Cronbach's alpha	문항수
정은이, 박용한(2009)	대인관계	.79	4
	학업활동	.78	4
	진로준비	.77	4
	개인심리	.77	4
	사회체험	.70	3
전체		.86	

본 연구	대인관계	.78	4
	학업활동	.86	4
	진로준비	.86	4
	개인심리	.87	4
	사회체험	.81	3
전체		.86	19

3)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부호화의 과정(coding)과 오류 검토 작업을 (data coding)을 수행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3.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문제음주, 대학생활 적응도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영역별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문제음주자 집단과 비음주자 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의 각 요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을 통해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빈도와 비율, 평균과 표준편차와,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의 각 변인별 적응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통계량 산출, 문제음주자 집단과 비음주자 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 차이 대응 비교와, 부모의 음주가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를 연구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대학생 총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Ⅳ-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자 127명(34.9%), 여자 263(72.3%)으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20대가 미만이 91명(25%), 20대가 263명(72.3%), 30대가 8명(2.2%), 40대 이상이 2명(2.5%)으로 2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103명(28.3%), 2학년 59명(16.2%), 3학년 141명(38.7%), 4학년이 61명(16.8%)으로 3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설문지에 응답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별 특성 현황은 〈표 Ⅳ-1〉와 같다.

〈표 Ⅳ-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27	34.9
	여	237	65.1
연령	20대 미만	91	25.0
	20대	263	72.3
	30대	8	2.2
	40대 이상	2	.5

학 년	1학년	103	28.3
	2학년	59	16.2
	3학년	61	38.7
	4학년	61	16.8
전 체	364	100.0	100.0

2.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요인에 따른 기초통계량

전체 대학생활 적응 응답에서 적응 5개 변인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체험의 총 19문항에 대한 각 문항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기초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대인관계에 따른 기초통계량

대학생활 적응 변인 중 대인관계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IV-2>와 같다.

<표IV-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항 1> '나는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많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171명(47%)으로 '아니다', '전혀아니다' 93명(25.6%)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문항 2> '나는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교수님이 있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125명(34.3%)으로 '아니다', '전혀아니다' 140명(38.5%)보다 낮게 나타났다.

<문항 3> '나는 선배들에게 많은 의견과 조언 등을 듣는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157명(43.1%)으로 '아니다', '전혀아니다' 98명(26.9%)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항 4> '학교 내에서 친한 친구들이나 선후배 등 아는 사람들이 많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176명(48.4%)으로 '아니다', '전혀아니다' 80명(22.0%)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에 전체에 응답한 학생 중 문항 4(3.38), 문항 1(3.27), 문항 3(3.20)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문항 2(2.92) '나는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교수님이 있다'에

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교수님, 선후배, 친구들과 인간 관계를 잘 맺고 있으나 마음을 터놓고 지낼 정도의 교수님은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IV-2〉 대인관계 따른 기초통계량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대인 관계	1. 나는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많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4 (6.6)	69 (19.0)	100 (27.5)	126 (34.6)	45 (12.4)	364 (100)	3.27	1.10
	2. 나는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교수님이 있다.	51 (14.0)	89 (24.5)	99 (27.2)	86 (23.6)	39 (10.7)	364 (100.)	2.92	1.21
	3. 나는 선배들에게 많은 의견과 조언 등을 듣는다.	31 (8.5)	67 (18.4)	109 (29.9)	109 (29.9)	48 (13.2)	364 (100)	3.20	1.14
	4. 학교 내에서 친한 친구들이나 선후배 아는 사람들이 많다.	13 (3.6)	67 (18.4)	108 (29.7)	120 (33.0)	56 (15.4)	364 (100)	3.38	1.06

2) 학업활동에 따른 기초통계량

대학생활 적응 변인 학업활동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IV-3]와 같다.

〈표 IV-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항 5〉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 관리를 잘 하고 있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157명(43.1%)으로 ‘아니다’, ‘전혀아니다’ 75명(20.6%)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항 6〉 ‘나는 전공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한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171명(47%)으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62명(17.0%)보다 높게 나타나 왔다.

〈문항 7〉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고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239명(65.9%)으로 ‘아니다’, ‘전혀아니다’ 47명(12.9%)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문항 8〉 ‘나는 강의 중 발표나 조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230명(63.2%)으로 ‘아니다’, ‘전혀아니다’ 44명(12.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3〉 학업활동에 따른 기초 통계량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학 업 활 동	5.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 관리를 잘 하고 있다.	10 (2.7)	65 (17.9)	132 (36.3)	117 (32.1)	40 (11.0)	364 (100)	3.30	.978
	6. 나는 전공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한다.	12 (3.3)	50 (13.7)	131 (36.0)	127 (34.9)	44 (12.1)	364 (100)	3.38	.976
	7.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고 수업에 충실 하게 참여하고 있다	13 (3.6)	34 (9.3)	78 (21.4)	138 (37.9)	101 (27.7)	364 (100)	3.76	1.06
	8. 나는 강의중 발표나 조별 활동에 열심히 참여 한다	10 (2.7)	34 (9.3)	90 (24.7)	149 (40.9)	81 (22.3)	364 (100)	3.70	1.00

학업활동 요인에 응답한 학생은 문항 7(3.76), 문항 8(3.70), 문항 6(3.38), 문항 5(3.20)순으로 모두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학업활동에서 학생들은 학점이나 수업활동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진로준비에 따른 기초통계량

대학생활 적응 변인 진로준비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IV-4〉와 같다.

〈표 IV-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항 9〉 ‘토익 등 영어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96명(26.4%)으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91명(52.4%)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문항 10〉 ‘나는 취업을 위한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113명(31.1%)으로, ‘아니다’, ‘전혀아니다’ 139명(38.1%)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문항 11〉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104명(28.6%)으로, ‘아니다’, ‘전혀아니다’ 136명(37.3%)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문항 12〉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145명(39.8%)으로, ‘아니다’, ‘전혀아니다’ 101명(27.8%)보다 높게 나

타났다.

진로준비 요인에 응답한 학생 중 문항 12(3.14), 문항 10(2.93), 문항 11(2.90)순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중 문항 9(2.56) '토익 등 영어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에서 매우 낮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진로준비요인에서 학생들은 진로를 위한 영어 공부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진로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 등의 준비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4〉 진로준비에 따른 기초 통계량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진 로 준 비	9. 토익 등 영어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90 (24.7)	101 (27.7)	77 (21.2)	68 (18.7)	28 (7.7)	364 (100)	2.56	1.25
	10. 나는 취업을 위한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30 (8.2)	109 (29.9)	112 (30.8)	84 (23.1)	29 (8.0)	364 (100)	2.93	1.08
	11. 취업준비를 하기위해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31 (8.5)	105 (28.8)	124 (34.1)	77 (21.2)	27 (7.4)	364 (100)	2.90	1.06
	12.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 하고 있다	28 (7.7)	73 (20.1)	118 (32.4)	107 (29.4)	38 (10.4)	364 (100)	3.14	1.95

4) 개인심리에 따른 기초통계량

대학생활 적응 변인 개인심리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IV-5〉와 같다.

〈표 IV-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항 13〉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230명(63.2%)으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32명(8.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문항 14〉 '나는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용기가 있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177명(48.6%)으로, '아니다', '전혀아니다' 50명(13.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문항 15〉 '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169명(46.4%)으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76명(20.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나타났다.

〈문항 16〉 ‘어려움에 닳쳤을 때 열심히 살았던 기억과 나의 장벽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는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175명(48.0%)으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77명(21.1%)보다 높게 나타나 나타났다.

〈표 IV-5〉 개인심리에 따른 기초 통계량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개인 심리	13.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7 (1.9)	25 (6.9)	102 (28.0)	149 (40.9)	81 (22.3)	364 (100)	3.74	.94
	14. 나는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용기가 있다	9 (2.5)	41 (11.3)	137 (37.6)	115 (31.6)	62 (17.0)	364 (100)	3.49	.98
	15.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있고 앞으로 하고싶은 일을 잘 알고 있다	10 (2.7)	66 (18.1)	119 (32.7)	111 (30.5)	58 (15.9)	364 (100)	3.38	1.04
	16. 어려움에 닳쳤을 때 열심히살았던 기억과 나의 장점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는다	19 (5.2)	58 (15.9)	112 (30.8)	121 (33.2)	54 (14.8)	364 (100)	3.36	1.07

개인심리 요인에 응답한 학생은 문항 13(3.74), 문항 14(3.49), 문항 15(3.28), 문항 16(3.36)순으로 전 문항에서 높게 응답을 하였고, 문항 13(3.74)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상과 같이 개인심리 요인에서는 학생들이 책임이 강하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도전의식과 용기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5) 사회체험에 따른 기초통계량

대학생활 적응 변인 대인관계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IV-6〉와 같다.

〈표 IV-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항 17〉 ‘교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185명(50.8%)으로, ‘아니다’, ‘전혀아니다’ 70명(19.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나타났다.

〈문항 18〉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사회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97명(26.7%)으로, ‘아니다’, ‘전혀아니다’ 142명(39.0%)보다 낮게 나타나 나타났다.

〈문항 19〉 ‘교내에서 진행되는 문화 및 학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에 응답한 학생

중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98명(26.9%)으로, ‘아니다’, ‘전혀아니다’ 159명(43.7%)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IV-6〉 사회체험 따른 기초 통계량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사회 체험	17. 교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	30 (8.2)	40 (11.0)	109 (29.9)	114 (31.3)	71 (19.5)	364 (100)	3.42	1.16
	18.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사회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43 (11.8)	99 (27.2)	125 (34.3)	57 (15.7)	40 (11.0)	364 (100)	2.86	1.15
	19. 교내에서 진행되는 문화 및 학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48 (13.2)	111 (30.5)	107 (29.4)	60 (16.5)	38 (10.4)	364 (100)	2.80	1.17

사회체험 요인에 응답한 학생은 문항 17(3.42)은 ‘교내 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는 높게 나타난 반면, 문항 19(2.80) ‘교내에서 진행되는 문화 및 학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한다.’와 문항 18(2.86)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사회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순으로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사회체험 면에서 학생들은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긴 하나 사회체험이나 문화 및 학술 프로그램에는 참여가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3. 문제음주집단과 비음주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 차이

문제음주집단과 비음주집단 간의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활 적응의 각 하위요인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체험 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문제음주 집단과 비음주집단간 대학생활 적응 비교는 〈표 IV-7〉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 적응요인 중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음주집단과 비음주집단 간 비교 결과 통계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음주에 따라 대인관계는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 요인 중 대학생활(1)은 t값이 5.17, p값은 .000이고, 대학생활(2)는 t값이 3.79, p값은 .000, 대학생활(3)은 t값이 3.26, p값은 .001이고, 대학생활(4)는 t값이 4.41, p값은 .000으로 문제음주와 비음주 간 대인관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제음주와 비음주의 각 대학생활 적응요인 평균값이 대학생활(1)에서 문제음주(2.91), 비음주(3.50), 대학생활(2)에서 문제음주(2.63), 비음주(3.11), 대학생활(3)에서 문제음주(2.97), 비음주(3.36), 대학생활(4)에서 문제음주(3.08), 비음주(3.57)로 문제음주가 비음주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문제음주 집단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학업활동 요인에서 두 집단 간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음주에 따라 학업활동은 다르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업활동에서의 대학생활(5)는 t값이 5.44, p값은 .000이고, 대학생활(6)는 t값이 4.67, p값은 .000, 대학생활(7)은 t값이 4.34, p값은 .000이고, 대학생활(8)은 t값이 5.55, p값은 .000으로 문제음주와 학업활동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제음주와 비음주의 각 대학생활 적응요인에서 평균값이 대학생활(5)에서 문제음주(2.97), 비음주(3.52), 대학생활(6)에서 문제음주(3.10), 비음주(3.57), 대학생활(7)에서 문제음주(3.47), 비음주(3.96), 대학생활(8)에서 문제음주(3.36), 비음주(3.93)으로 문제음주가 비음주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문제음주 집단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학업활동 요인에 대한 두 집단 간 비교의 결과 통계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음주에 따라 진로준비는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진로준비에서 대학생활(9)는 t값이 5.48, p값은 .000이고, 대학생활(10)은 t값이 7.05, p값은 .000, 대학생활(11)은 t값이 6.41, p값은 .000이고, 대학생활(12)는 t값이 4.15, p값은 .000으로 문제음주와 진로준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제음주와 비음주의 각 대학생활 적응요인 평균값이 대학생활(9)에서 문제음주(2.14), 비음주(2.85), 대학생활(10)에서 문제음주(2.47), 비음주(3.23), 대학생활(11)에서 문제음주(2.48), 비음주(3.17), 대학생활(12)에서 문제음주(2.86), 비음주(3.33)으로 문제음주가 비음주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문제음주 집단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개인심리 요인에 대한 두 집단 간 비교 결과 통계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음주에 따라 개인심리는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심리에서의 대학생활(13)은 t값이 4.67, p값은 .000이고, 대학생활(14)는 t값이 3.32, p값은 .001, 대학생활(15)는 t값이 5.73, p값은 .000이고, 대학생활(16)은 t값이 4.08, p값은 .000으로 문제음주와 개인심리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제음주와 비음주의 각 대학생활 적응요인 평균값이 대학생활(13)에서 문제음주(3.47), 비음주(3.93), 대학생활(14)에서 문제음주(3.28), 비음주(3.63), 대학생활(15)에서 문제음주(3.02), 비음주(3.63), 대학생활(16)에서 문제음주(3.08), 비음주(3.55)로 문제음주가 비음주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문제음주 집단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째, 사회체험 요인을 두 집단 간 비교한 결과 통계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음주에 따라 사회체험은 다르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체험요인에서는 대학생활(17)은 t값이 4.99, p값은 .000이고, 대학생활(18)는 t값이 4.85, p값은 .000이고, 대학생활(19)는 t값이 6.05, p값은 .000으로 문제음주와 사회체험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제음주와 비음주의 각 대학생활 적응요인 평균값이 대학생활(17)에서 문제음주(3.06), 비음주(3.66), 대학생활(18)에서 문제음주(2.52), 비음주(3.10), 대학생활(19)에서 문제음주(2.36), 비음주(3.09)로 문제음주가 비음주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문제음주 집단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과 같이 부모 문제음주 집단과 비음주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체항목에서 집단 간 적응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문제음주집단과 비음주집단의 대학생활 적응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문제음주 (n=146)	비음주 (n=218)	문제음주	비음주		
대 인 관 계		대학생활1	2.91	3.50	1.08	1.05	5.17	.000
		대학생활2	2.63	3.11	1.14	1.21	3.79	.000
		대학생활3	2.97	3.36	.99	1.21	3.26	.001
		대학생활4	3.08	3.57	0.96	1.08	4.41	.000

으로 문제음주집단의 적응 요인별 적응순서를 평균으로 살펴보면 학업활동(3.23), 개인심리(3.21), 대인관계(2.90), 사회체험(2.65), 진로준비(2.48)순으로 학업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준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비음주집단 또한 학업활동(3.75), 개인심리(3.65), 대인관계(3.35), 사회체험(3.28), 진로준비(3.15)순으로 학업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준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대학생활 적응 전체 영역에서 문제음주 집단과 비음주집단의 비교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제음주와 비음주의 대학생활 적응 전 영역에서 평균값이 문제음주(.40), 비음주(.60)으로 문제음주가 비음주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문제음주 집단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과 같이 문제음주와 비음주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을 비교한 결과 전 영역에서 문제음주집단과 비음주집단 간 적응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로써 부모 음주 요인이 높아지면 대학생활 적응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부모 문제음주가 대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제주도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남자 127명, 여자 263명 총 36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관한 연구결과 부모음주 문제가 대학생 생활 적응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검증결과 여자(263명)가 남자(127명)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 요인별 기초통계량의 검증결과에서 적응요인 중 학업활동이나 개인심리에서 가장 높은 적응력을 보여 음주문제가 학업활동이나 개인심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음주와 관계없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순에서도 학업활동, 개인심리, 대인관계, 사회체험, 진로준비 순으로 학업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체험, 진로준비 요인이 가장 적응도가 낮게 나왔다. 이로써 대학생들이 본업인 학업 관련 활동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여 학업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진로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준비 하기엔 아직 사회에 대한 체험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취업의 벽은 모든 학생들이 현실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연구의 결과는 정은이, 박용한(200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대학생활 적응 요인 중 대인관계에서 대학생들은 선 후배, 동기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나는 고민이 있을 때 터놓고 상담할 교수님이 있다.'라는 항목이 낮게 나타나 학생들이 고민을 털어 놓을 대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문제음주자 집단과 비음주자 집단의 대학생활 적응 요인별 차이 비교에서 대학생활 적응의 모든 요인에서 문제음주자 집단이 적응에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특히 대인관계, 사회체험, 진로준비 순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 전체 영역에서의 문제음주와 비음주 간 대학생활 적응 비교 결과 전 영역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김정희(2006), 최윤정(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박다연(2015)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즉 부모 음주 요인이 높아지면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부모 음주 문제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 개인심리 영역에서 가장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음주 요인이 대학생활 적응 전체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심리 영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음주 자녀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촉진하는 내·외적 요인과 적응의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김정희(2016), Averna(1999)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모의 음주문제 요인이 대학생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개인마다 적응에 차이가 있고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제언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이 대학별, 전공별, 학년 등에서 다양성을 갖질 못하여 남학생 127명, 여학생 263명으로 총 364명 중 남학생보다 여학생 비율이 매우 높았고, 학년 군도 3학년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임의 표집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 연구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치중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후 대상자별 다양성 있는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요인을 한정적인 요인으로 연구를 한 결과 대학생들이 부모 음주 문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후속연구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 대학생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의 장과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넷째, 진로, 사회에 대한 체험이나 경험을 대신 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가 이어나가길 바란다.

다섯째, 음주 부모의 자녀에 대해 대학과정을 넘어, 사회적응의 과정까지의 기간을 다차원적인 면에서 연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음주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지나치기보다는 가족의 질병, 사회의 문제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많은 연구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모 음주 문제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결되어 나가길 바란다.

VI. 참고문헌

- 강혜원(1998). 학업에 대한 성패귀인, 자기효능 및 내적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2(2), **한국교육심리학회**, 85-107
- 권오인(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음주문제와 자녀의 정신병리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종선(2003). 부모의 음주정도와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진숙, 김정진, 전석균, 성준모(2012). 정신보건사회복지론, 3(1), 47-59
- 권혜진(2007). 대학생의 대학환경풍토지각과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규수(2006).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의 심리적 특성과 부적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2(2호).
- 김광현, 강성배(2016).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양교육 연구**, 10(3), 253-293
- 김경빈(1987). 알콜리즘의 임상적 연구(1) : 최근 5년간 국립서울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콜 중독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국립서울정신병원연보**, 105-116.
- 김경빈·김미례·장환일(1995). 한국어 알코올독자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 CAST-K)의 개발 : 신뢰도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34(4), 1182-1193
- 김경호(2018).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과 우울을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 42.
- 김민경(201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음주, 음주기대와 문제음주에 대한 연구:자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대한아동복지학회**, 10(3), 61-80
- 김성경(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69.
- 김수지(2012).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육기(2005).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음주문제가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득(2002). 문제성 음주부모 청소년 자녀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범(2008).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심리사회적 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2016). 대학의 사회적 자본이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2006). 알코올 중독자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희(2002).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초등학생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경·김현미·박현숙·손경희·이혜경 (2011). 실무중심의 정신건강간호학. **현문사**, 432.
- 김한나, 김혜련, 최윤신(2019).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여자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와 식이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14(1), 61-72
- 김혜선(2013).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의 문제음주, 부모의 문제음주 영향, 그리고 공동의존. **사회복지연구**, 44(2), 89-112
- 김희숙(2006). 정서조절양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및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0,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76-201
-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발전논총**, 23(1), 153-167.
- 문화진(2018).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개방성과 셀프리더십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요과교육연구**, **학습자중심교과 교육학회**18(14):827-847.
- 민은정(2000).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다연(2015). ACOAs의 부모음주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미(2005). 아동의 모애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은주, 조규관(2017).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9(17). : 449-469.
- 박유화(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적응도의 관계 연구.
- 박인영(1999).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인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진영(2009). 성인대학생용 대학생활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평생교육학 연구**, 15(3), 111-135.
- 박희석(2010). 대학생활 적응 척도의 요인구조 분석: 관광 관련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43, **관광경영학회**, 346-360
- 봉은주, 김은아(2016).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7(1).
- 양혜선(2004). 애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2013). 대학생활의견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 서혜련(2004). 문제음주가정 및 비음주가정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스트레스의 관계. **韓南大學校 社會文化科學大學院석사학위 논문**.
-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2008). 2008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분석, **학생생활연구** 31
- 손영균, 오경자(1994). 무제성 음주자의 청소년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5(1), 172-183
- 송정애·장정순(2010).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1), 119-144.
- 신진희(2017). 청소년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음주문제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승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혜영(2009). 초등학생의 목표지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경선(1996)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음주기재에 대한 부모와 친구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재순, 정성진, 서정현(2012). 부모의 문제음주와 고등학생 자녀의 부모화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13(1).
- 원명숙, 조혜림(2009). 부모의 문제음주가 청소년 자녀의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부모애착과 학대경험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 원재순(2009). 문제성음주자 자녀의 학교적응에 사회적지지이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부미, 박한샘, 김영자(2004). 천안캠퍼스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실태 조사. *학생생활연구*18,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9-54.
- 유정순, 정현희(2015). 부모의 문제음주 여부와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개인내적 보호요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4), 415-433
- 유채영, 김혜미(2003). 대학생의 스텔스와 문제음주 관계 탐색에 관한 연구: 부정적 정서와 적응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4)
- 윤명숙(2006). 알코올중독 가족력을 가진 대학생 자녀의 ACOA성향과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7(2), 29-44
- 이경아, 신혜린, 유나현, 이기학(2008). 학교상담 : 간편 대학생활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9(2), 739-754
- 이미라, 전현숙(2015).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성격유형,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 적응. **한국산학기술학회**, 16(12), 8861-8869
- 이보라, 김미애, 이기학(2005). 외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학회지** 학교 2(1), **한국심리학회**, 99-112.
- 이백범(2018).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회피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정(2000). 지방출신 서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계획.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2011).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의 우울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은희(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45.
- 이진이(2009). 알코올 중독 부모를 둔 자녀의 학교적응 영향요인.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화(2003). 부모의 문제음주에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화(2004).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 **한국간호학회지**, 5,239-239.
- 장수미(2001). 알코올독자 가족의 가족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개입모형 개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53-77.

장지현(2002). 부모의 음주 문제에 따른 청소년의 음주효과기대와 문제성 음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재복(2005). 부모의 음주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민, 노안영(2002). 생활양식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375-387.

조영미(1999). 학교장면에서의 실제적 지능의 유용성.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미애(2015). 부모의 문제음주가 여자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은이, 박용한(2009). 대학 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21(2), **한국교육방법연구**, 21(2), 69-92.

정향수(2005).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심리적 특성이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화진(2004). 부모와의 애착 및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조혜현(2007).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의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인아이성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차소영(2004). 부모의 음주문제가 청소년 자녀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윤신(2009). 성별에 따른 부모의 문제음주와 자녀의 적응의 차이.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윤정(2004).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 부모역할과 부모와의 애착의 매개역할.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하은경, 최용용 (2018). 대학생의 진로성숙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진로 미결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16(1), 183-191.

한덕웅, 전경구, 이창호(1991). 한국 대학의 생활환경 변화와 대학생활 적응. **학생생활연구**

- 9(1),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5-169.
- 한재현(2015). 초기 청소년의 정신병리에 부모의 음주문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수경(2019). 대학신입생의 부모관련변인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의 매개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1), 919-937.
- Arkoff(1968). *A djstm ent and m ental health* Magraw Hill Book-38Company.
- Barnes, G. M. & Welte, J. W.(1990). Prediction of Adults' Drinking of Their Par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1, 523-527
- Baker, R. W., & Sirky, B(1984)“ Mear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Black, C. (1981). *It will never happen to me*. Denver, CO: Medical Administration Company
- Bowlby(1988). *A secur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Routledge.
- Daley, D. C., & Marlatt, G. A. (1997). *Managing your drug or alcohol problem*, Therapy Works.
- Datu, J. A. D. (2012). Drawing predictive determinants of college adjustment: perspectives from two private sectarian collegiate institutions. *Journal of A rts, Science & Commerce*, 3 , 16-24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Garnezy, N.(1994). Refelctions and commentary on risk, resilience, and development,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nezy & M. Ry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178.
- Jones J.W. (1981).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hicago: Family Recovery Press.
- Knorring A.L. (1991). Annotation : children of alcoholics. *J Child Psychiatry*, 32, 411-421.
- Rice, K.G, Cole, D. & Lapsley, D.K. (1990). Separation-individuation, family cohesion,

- and adjustment to college: Measurement validation and test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20),195-202.
- Schunk, D. H.(1983). Ability versus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Differential effects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 848-856.
- Schunk, D. H.(1991).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y*, 78, 201-209.
- Sher, K. J., Walitzer, K. S., Wood, P. K., Brent, E. E.(1991).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alcoholics: Putative factors, substance use and abuse,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 Psychology*, 100, 427-488.
-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 ICD).
- 국가통계포털(2017). <http://koss.kr> : 2017월간 폭음을 추이
- 뉴스시스(2017.11.15.). <http://www.newsis.com>: 사회, "술 권하는 사회 이제는 그만"...미디어 음주 가이드라인 제정
- 한국일보(2018.2.2). <http://hankookilbo.com>: 사회, "술권하는 문화 손 본다"
-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 ICD).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음주자의 자녀를 이해하고 적응유연성을 강화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작성 되었습니다.

각 문항은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므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설문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9 년 5 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 양 진 건

연구자 : 고 영 서

I. 다음은 학교 및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적절한 답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사항에 '√'표하여 주시고, 필요 시 직접 적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세

3. 귀하는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II. 부모님의 음주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또는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내용과 일치하면 “여”에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에 ‘√’표 해주세요.

질 문	예	아 니 오
1. 나는 부모님 중 한분이나 두 분 모두 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있다.		
3.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술을 끊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		
4.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외로움, 두려움, 불안, 좌절을 느낀 적이 있다.		
5.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셨을 때 부모님과 말다툼이나 싸움을 한 적이 있다.		
6.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 문제 때문에 가출을 했던 적이 있거나 가출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7.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나나 식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때린 적이 있다.		
8. 나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술을 마셨을 때 부모님끼리 싸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9. 나는 술 마신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식구를 보호하려고 한 적이 있다.		
10.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병을 감추거나 쏟아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다.		
11.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음주와 음주로 인해 나나 가족에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		
12.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끊기를 바란 적이 있다.		
13.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내 책임이나 내 잘못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다.		
14. 나는 술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 적이 있다.		
15. 나는 부모님이 술 마시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친구나 집밖에서의 활동을 피한 적이 있다.		
16. 부모님 중 한분이 술을 마셨을 때, 부모님이 말다툼이나 싸움 중에 나를 끌어 들였던 적이 있다.		
17.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18. 나는 술 문제가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		
19.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 마시는 것을 원망(매우 미워함)한 적이 있다.		
20. 나는 술을 마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해 본 적이 있다.		
21.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비난 받아 본 적이 있다.		
22. 나는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3. 나는 우리 집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시지 않는 내 친구들의 집처럼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다.		
24.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 때문에 나와 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다.		
25. 나는 어머니가 알코올중독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6. 나는 술 마시는 아버지(또는 어머니)를 피하거나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술 문제에 대한 어머니(또는 아버지)의 반응(잔소리, 신경질, 싸움 등)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간 적이 있다.		
27. 나는 우리 집의 술 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 했으면 좋겠다고 바란 적이 있다.		
28.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나 다른 친척들과 싸우거나 다툰 적이 있다.		
29.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다가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배가 아프고 울거나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다.		
30.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 문제 때문에, 전에 부모님이 하셨던 집안 살림이나 일들을 대신 한 적이 있다.		

Ⅲ. 다음은 최근에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경험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사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많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나는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교수님이 있다.					
3. 나는 선배들에게 많은 의견과 조언 등을 듣는다.					
4. 학교 내에서 친한 친구들이나 선후배, 아는 사람들이 많다.					
5.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 관리를 잘 하고 있다.					
6. 나는 전공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한다.					
7.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고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다.					
8. 나는 강의 중 발표나 조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9. 토익 등 영어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10. 나는 취업을 위한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11.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12.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13.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14. 나는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용기가 있다.					
15.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잘 알고 있다.					
16. 어려움에 닥쳤을 때 열심히 살았던 기억과 나의 장점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는다.					
17. 교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					
18.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사회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19. 교내에서 진행되는 문화 및 학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English Abstract】

Effects of Problem Drinking by Parents on Children Adapting to College Life

Young-suh Ko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Consulting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dvisor: Professor Jin-kun Yang

Excessive drinking and alcoholism cause a great deal of adverse effects in our society these days. Not only do they bring problems to individuals in their personalities, mental health and social activities, people with drinking problems also have critical impacts on their families and community that they belong to. What is more alarming is that alcoholism within a family has profound impact on its adolescents members.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COAs) often appear to adapt to college life without problems, but it is indeed during their college years where there is a high chance of projecting their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importance of college experience cannot be overlooked because it is during college years when ego-identity and directions in life begin to solidify. At the same time, building and maintaining healthy relationships with peers is extremely important during this period, and as college years are considered to be the time for career preparation, it is of utmost significance that productive and enjoyable time in college is attained.

As such, ACOAs often suffer from numerous challenges and problems during as they progress through their adolescence and adulthood. Lack of research on those who are in

college, however, calls for multidimensional studies on how ACOAs manage themselves through college years.

This research, which builds upon previous studies that showed parent-children relationship is related to children's experience in adapting to college life, aims to identify the effect of parents' problem drinking on their children's college experience.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fundamental set of data in better understanding ACOAs and assisting them to adapt to college life and accomplish better academic achievements.

Keywords: parents, problem drinking, college students, adaptation, college life